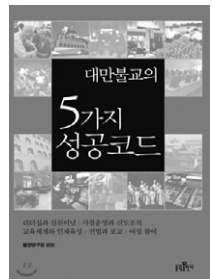


‘인간 불교 실천’ 대만불교 성공 비결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불광출판사 펴냄
불광연구원 편찬
2만3천원

7년 전 대만 카오슝에 있는 포광산사를 방문했다. 경내 곳곳을 둘러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다. 사찰 규모가 커서가 아니었다. 내 눈을 고정시킨 것은 사찰 내부에 들어선 시철의 컨테이너였다. 1천여 명 이상 회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부처님 일대기 테마파크, 4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등등. 또 놀란 것이 있다. 아침 예배 뒤 스님과 신도들이 같은 법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미소를 잃지 않는 스님들의 따뜻한 모습 등이다.

각한 침체를 겪었다. 지식계층은 주로 개신교를 믿었고 불교계는 기복 신앙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대만은 인구의 80%가 불자이며, 전 세계 200여 곳에 분원을 둔 사찰이 있을 정도로 급성장 했다. 그 배경에는 포광산사(佛光山), 초지공덕회(慈濟功德會), 파구산사(法鼓山寺), 중타이선사(中臺禪寺)라는 신종 4대 종단이 자리 잡고 있다. 신도 100만 명, 전 세계 33개 국가 200여 분원을 운영하며, <불광대장경> <불광대사전>을 편찬한, 상인(星雲) 스님의 포광산사(佛光山), 전 세계 400만 회원을 자랑하



佛光山寺의 아침 기공 모습



慈濟功德會의 음식봉사 회원들

대만의 인구 80%가 불교신자
佛光山寺 등 신종 4대 종문 성장
투명한 사찰 운영 불교 발전 큰 몫
대만 사찰들 공익 법인으로 운영 돼

는 국제적인 구호 단체인, 정엔(證嚴) 스님의 초지공덕회(慈濟功德會), 중화불학연구소, 파구산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을 통해서 한전불교(漢傳佛敎) 연구를 촉진시키고, 수준 높은 불교교육과 전법 인재를 양성하는 성엔(聖嚴) 스님의 파고산사(法鼓山寺), 1천여 출가자와 수십만 재가자가 중공 선종의 경흥을 꾀하며, 세계 최대의 선종 도량을 겸립한 웨이제(惟覺) 스님의 중타이선사(中臺禪寺)가 바로 그 신종 4대 종문이다.

4대 종문은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유한 사찰을 벗어나 도심에 중심으로 성장세를 키워나갔다. 그렇다면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불광연구원 지홍 스님은 중생 속으로 들어가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간불교를 실천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 코드>는 바로 그 이유를 알려 주는 책이다. 불광연구원 주도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와 동국대 김호성 교수, 같은 대학 박인석 HK연구교수, 충북대 서대원 교수 등 전문 학자들이 현지 조사와 자료를 토대로 두 차례의 세미나와 함께 1년여 동안 대만불교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급성장한 신종 4대 종문을 중심으로 대만불교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5가지 중요 코드로 구분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인간불교’의 실천이념 △투명한 사찰 운영 방식과 체계적인 신도 조직 △현대적인 교육체계와 적극적인 인재육성 △활발한 전법과 도심포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나눠 총 15편 글을 통해 대만불교 발전 요인을 상세히 기술했다.

박인석 동국대 HK연구교수는 이 책에서 대만불교의 성공 사찰 중 포광산사와 초지공덕회를 분석했다. 박 교수는 “포광산사서 국제포광회를 창립해 재가신도조직을 만들어 그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초지공덕회도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전 세계로 여성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응철 교수는 한국불교의 성장에 대해 시사하는 바도 책 말미에 덧붙였다. 첫째, 대만 사찰의 지도력은 사찰이나 종단적 결속력에서 나오지만, 한국 사찰 스님들은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 의존하는 지도력 발취하고 있다. 둘째, 대만불교는 계행 실천을 통해 승가의 자체 정화 기능이 잘 작동하지만, 한국불교는 이 종단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저 종단으로 옮겨 가는 사례들이 있다. 셋째는 사찰 운영방식에서 대만은 공익법인 수준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주지 스님 1인의 의사결정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모든 중생에겐 제 몫의 고통 있어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바나드 지음
이현 옮김
문학의 숲 펴냄
1만3500원

저자는 이 책을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필했다.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배위에 올려놓고 자료를 이불 위에 펼쳐 놓은 채 팔이 닿는 위치에 프린터를 두고 책을 썼다. 어떤 날에는 한 주제에 너무 몰두해서 오랫동안 작업한 결과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몇 주 동안 전혀 글을 쓸 수 없기도 했다. 저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글을 쓴 이유는 만성적으로 아픈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 책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 보다 큰 위로와 따뜻한 통찰을 전해 주는 역작이 되었다.

저자가 일차적으로 주목한 것은 몸의 병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거기 머물지 않고 고통이 유발되는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아프지만 나올 수 없는 사람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또한 언제까지 일순간에 삶이 운동 달라져 버릴 수 있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모두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우리가 저마다 제 몫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아픔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조언한다.

저자는 병에 걸리기 전 1992년부터 불교 공부와 수행을 병행해 왔고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집 바깥은 물론 침대 바깥으로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되면서 그동안 해 오던 형태의 수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마음속에서 희망과 실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자, ‘아픈 상태’를 자신의 영적 수행의 중심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분노나 좌절감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로움으로 바꾸는 방법,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야.’ 혹은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 처럼 수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는 방법, 힘들게 애쓰고 있는 육체를 다정하고 자비롭게 대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에 자주 수반되는,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을 그만둘 수 있게 하는 방법, 목표했던 것들·직업·활발했던 사회생활을 잃게 된 것처럼

림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많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본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증상들의 기복에 낙담하지 않고 견디는 방법, 생각과 감정을 현재 순간에 돌으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이겨 내는 방법,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워진 제약들을 비뚤함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 좌절감과 조급함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면서 의료보험 제도를 알아보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 ‘아픈 사람’이라는 견고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벗어 던지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제 몫의 고통이 있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고통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는다. 아프지 않은 사람조차 외로움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설령 우리에게 끔찍한 문제가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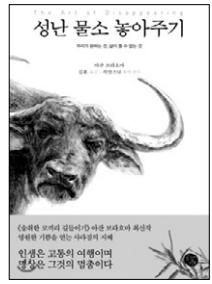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법 소개
불교적 통찰과 명상수행에 근거
삶의 고통은 오히려 신선한 자극제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에 담기는 것을 갖는다. 내 삶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 책에서 마음을 다루는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통찰과 명상 수행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런 수단들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기 위해 불교도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토니 바나드는 깨진 계란 속에서 오를 법을 발견했다. 그리고 깨진 계란에 직면한 우리들께 그녀의 오물렛 요리법을 하나의 선물이다. 선택권이 주어진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프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아름답게 지적하듯이 삶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든 데려갈 수 있다. 그 바람이 모두에게 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역시 삶의 여행을 이루는 일부이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외로움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 저자는 아픔과 고통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며, 보다 큰 우정과 사랑에 기여하게 하는 삶의 유익한 정대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 감동적으로 전한다.

번뇌서 벗어나는 방법 서술

성난 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지음 | 김훈 옮김
공간의 기쁨 펴냄 | 1만5천원



한 사내가 한 손가락을 잃은 상태로 수도원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사연인즉슨 사내가 자기 집 물소를 끌고 풀을 먹이러 가는데 물소가 갑자기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다. 그런데 물소를 묶고 있는 밧줄이 사내의 손가락을 휘감고 있어 물소를 당기는 순간 밧줄이 그 손가락을 반 토막 내버렸다. 그 사건은 사내가 흥분해 들뜬 물소를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는 물소를 놓아버려야 했다.

‘마음의 물소’가 내달려가게 가만 내버려두라.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진정하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마구 들떠 때, 그것이 꼭지가 핵 돌아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하고 싶어 할 때면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면서 놓아버려라. 세계를 감동시킨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의 아잔 브라흐마가 ‘성난 물소를 놓아주는 지혜’로 돌아왔다. 이 책은 사라짐이 일어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은 외면만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주 즐겁기 때문에 대단한 열락이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인젠간 모두 사라진다. 그것들은 ‘거짓 행복’이다. 그것들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다.

참나 찾는 마음공부 에세이

그대와 나에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다
남학현 지음 | 고려원북스 펴냄 | 1만3천원



젊은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던 남자는 평생을 명상과 수련에 몰두했다. 직장에서도, 미국서 MBA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도, 협상학 강의를 나가면서도 놓지 않은 것이 마음공부였다. 일주일씩 집을 비우면서까지, 그렇게 수십 년간 해왔던 그 좋았던 공부를 정작 아내에게 시켜주지 못한 것이다. 이제 제법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만한 것 씬을 넘긴 나

이, 느닷없이 쓰러진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다. 남자는 절규했다. 먼 길을 홀로 떠나야 하는 아내에게 아직 못해준 말이 남아 있었다. 이를 줄 알았으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그녀의 영혼이라도 자신의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싶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공부를 하고 먼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싶어한 그 기록이 이 책의 1부다. 수십 년간 공부해 깨달았던 진리를 바탕으로, 과학과 논리를 도구로, ‘참나를 찾아가는 마음공부’ 에세이를 완성한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의 2부다. 이 책은 남자가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이다. 못 다한 이야기 때문에 가슴 아픈 스스로에 대한 치유년 해왔던 그 좋았던 공부를 정작 아내에게 시켜주지 못한 것이다. 이제 제법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만한 것 씬을 넘긴 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뱉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2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팬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열되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팬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게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게둡니다.
- 9 두 줄로 2회 뒤로 기법계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험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더를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성원사인쇄출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담 카페 |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